



케인

잉글랜드 '중가의 자존심'

크로아티아 '발칸포의 위력'

“누가 더 세냐”

내일 새벽 3시 4강전... 각각 28년·20년만의 무대
잉글랜드, 조직력 끈끈... 6골 케인 득점왕 도전
크로아티아, 모드리치·라키티치 강력한 미드필드

조직력을 앞세운 잉글랜드(FIFA랭킹 12위)와 강력한 허리라인을 앞세운 크로아티아(20위)가 월드컵 결승 티켓을 놓고 충돌한다.

두 팀은 오는 12일 오전 3시(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4강전을 치른다.

두 팀이 4강전에 진출한 건 꽤 오랜만이다. 잉글랜드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4강에 올랐다. 두 팀은 4강 진출 이후 오랜 기간 암흑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잉글랜드는 최근 2차례 월드컵 무대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선 우여곡절 끝에 16강에 진출했지만, 독일에 1-4로 대패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크로아티아는 1998년 이후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 무대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6독일월드컵에서 모두 조별리그 탈락했고, 2010년 남아공월드컵 본선 무대는 아예 밟지 못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1승 2패로 조별리그 탈락했다.

월드컵 주류와 거리가 멀었던 두 팀은 이번 대회에서 완벽한 자기 색깔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잉글랜드는 그동안 선수 개인기에 기댄던 모습을 타파하고 끈끈한 조직력을 덧입혔다. 8강까지 기록한 11골 중 8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오는 등 유기적인 호흡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토트넘)은 이번 대회 6골로 득점왕을 노리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와 이반 라키티치(FC바르셀로나)가 이끄는 미드필드 라인이 강력하다.

세계적인 공격수 마리오 만주키치(유벤투스)와 이번 대회에서 연속 경기 승부차기 승리를 이끈 골키퍼 다니엘 수바시치(AS모나코) 등 뒤에서 버티는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상대 전적은 잉글랜드가 앞서고 있다. 총 7차례 A매치 맞대결에서 잉글랜드는 4승 1무 2패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A매치 기록도 잉글랜드가 우위에 있다. 잉글랜드는 2008년 9월 4-1로 대승한 뒤 2009년에도 5-1로 이겼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측하는 분위기다.

체력 변수에서 잉글랜드가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크로아티아는 덴마크와 16강, 러시아와 8강전에서 모두 연장 혈투를 펼친 탓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다. 특히 러시아와 경기에선 시메 브르살리코(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상대수 선수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경기에서 승리한 뒤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외쳤던 크로아티아 도마고이 비다(베식타시)는 출전금지 징계에 예상됐지만, 다행히 경기에 그쳐 한숨을 돌렸다. /연합뉴스



모드리치

빨라진 광주 FC '무패행진'

아산·서울·부산 죽음의 3연전 1승2무

광주 FC가 빠르고 세밀해졌다.

광주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죽음의 홈 3연전'을 치렀다. 1일 아산 무궁화와의 K리그2 경기를 시작으로 4일에는 15라운드 순연경기로 서울 이랜드와 대결했고, 9일에는 부산 아이파크와 만났다.

더위 속 9일 동안 3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었다. 결과는 1승 2무.

후반 종료 직전 터진 정영종의 '극장골'로 아산에 2-2 무승부를 거뒀고,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나상호를 시작으로 김정환 그리고 김민규의 골이 연달아 터지면서 3-0 대승을 거뒀다. 부산전에서도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체력의 한계 속에 치른 홈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광주 선수들은 무승부로 끝난 게 아쉬울 정도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 후반기 달라진 광주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다.

광주는 이날 전반 20분 실점을 했지만 전반 39분 프리킥 상황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올 시즌 FC 서울에서 이적한 임민규가 키커로 나서 직접 골대를 겨냥해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 골은 임민규의 프로 데뷔골이기도 하다.

후반 막바지에 체력 저하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의 집중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광주 선수들은 경기 내내 놀라운 활동력을 보여줬다.

월드컵 휴식기 동안 체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강도 높은 훈련 덕분에 '9일 3경기'에도 선수들은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다.

또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박진섭 감독이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과 개성에 맞는 스타일을 주문한 게 서서히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선수들은 전반기와 다른 모습으로 과감하게 드리블을 하고 슈팅을 하면서 경기 모습을 바꿨다.

여기에 기영욱 단장이 중심이 된 맞춤형 영입도 적중했다.

광주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미드필드 최준혁과 공격수 김민규를 각각 강원 FC와 울산 현대에서 영입해 선수단을 재정비했다. 지난 8일에는 포항 스틸러스로부터 U-23 대표인 미드필더 이승모를 영입했다.

187cm의 최준혁은 재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광주의 세트피스 상황에 위력을 더했다. 김민규는 광주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승모도 부산전에 바로 투입돼 신고식을 했다.

과감한 변화도 있었다. 공격수로 역할을 했던 두현석이 휴식기를 보낸 뒤 수비수로 변신해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특유의 스피드와 공격적인 성향이 어우러진 두현석의 활약에 광주의 밸런스가 좋아졌다.

'죽음의 3연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광주는 15일 수원FC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자카르타 향해 더 높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39일 앞둔 10일 충청북도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장에서 유도 대표 선수들이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메달 208개·종합 2위 목표”

자카르타 AG 내달 18일~9월 2일

선수단 미디어데이... 남북 개최식 공동입장

대한민국 선수단이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6회 대회 연속 종합 2위를 향해 힘차게 발진한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엘리트 스포츠의 총본산인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미디어데이를 열고 대회에 임하는 각오와 목표를 밝혔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40개 종목, 465개 세부경기가 열리는 자

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브릿지 종목은 제외한 39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960명을 파견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 이어 국제대회에서 두 번째로 출범하는 남북단일팀인 북한 선수단 30명(임원 4명·선수 26명)이 합류한다.

남북은 체육회담을 열어 여자 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등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자 농구 3명, 카누 16명, 조정 7명 등 26명의 북한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들이 단일팀 '코리아'(COR)의 이름으로 메달 경쟁에 참가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65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72개 등 총 208개의 메달을 획득해 1998년 방콕 대회 이래 6회 연속 종합 2위를 수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태권도(9개), 양궁-펜싱(이상 7개), 유도(5개), 사이클(4개) 등 전통의 강세 종목에서 금메달 39개 이상을 기대하고 육상 여자 100m 허들의 정혜림, 수영 여자 200m 개인혼영의 김서영 등 기초 종목과 신규 종목에서 금메달 7개 이상을 바란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결단식은 8월 7일 서울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다.

인도네시아에서 56년 만에 열리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8월 18일 개막해 9월 2일 폐막한다.

남북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역대 국제대회 11번째로 개최식 공동입장을 한다.

/연합뉴스